

# kiri Weekly

2015.1.12 제316호

## 이슈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 포커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 글로벌 이슈

ECB의 양적완화와 그렉시트(Grexit)에 대한 평가  
베트남 자동차보험 시장 성장 전망과 시사점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전용식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 요약

- 금융산업의 융합, 경쟁촉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음.
  - 과거 두 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금융실명제, 금산분리, 금융전업주의, 초기 자본금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음.
- 90년대 후반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비은행금융회사와 정보통신 등 비금융회사들이 설립을 주도하였고, 설립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금융전업주의 완화와 더불어 금융업권간 융합, 금융과 제조업의 융합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이 비은행금융·제조업 기업들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화된 사업모형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은행금융·제조업 기업의 참여와 업무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업권간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도입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음.
  -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산분리의 유연한 적용, 금융전업주의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의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채널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업권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금융서비스에서 파생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와 리스크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업권간 융합이 업권간 공정한 경쟁과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함.

## 1. 검토배경



■ 2001년과 2008년에도 있었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음.

- “Mobile Direct Bank”, 혹은 “On-Line Bank”로 지칭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미국, 일본, 유럽에서 은행, 증권, 보험, IT, 제조업 기업들이 설립함.
  - 비대면채널 중심의 은행으로 지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정부는 IT와 금융의 융합, 금융전업주의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다시 논의하기 시작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금융 역동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2015년에 검토할 계획임.<sup>1)</sup>
  - 2001년과 2008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무산 원인인 업무범위 설정,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 그리고 자본금 규제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임.

〈표 1〉 은행 분야 중장기 검토과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금융위원회, 2014. 7. 24)

근거	제안 내용	검토의견
은행법 제8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 · 리스크와 무관하게 최소 자본금 등의 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흐름에 대응할 필요</li> <li>•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 및 실명확인 방법개선 합리화 등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li> </ul>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는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분리원칙과 금융전업주의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임.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대주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는 금산분리와 금융전업주의 적용의 유연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1) 2014년 12월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포함함.

- 일본의 경우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수단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경우, 다양한 업무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은행으로 보고 있음.
-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이슈와 고려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함.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는 금산분리와 금융전업주의의 완화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가계의 부채 상환여력이 위축되고 있어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예대업무에 그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온라인 채널에서 은행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 그리고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신종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음.

## 2. 주요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 일본의 경우 1997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였고 이후 산업자본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지점영업 은행을 설립하며 은행업에 진출함.
  - 1997년 금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점업화를 촉진하고자 비금융기관의 20% 이상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함.
    -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20% 이상을 보유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주식취득을 허가받아야 하고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함.
    - 산업자본이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금융건전성을 금융감독당국이 감독할 수 있으며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사실상 은행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모회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음.
  - 은행법 개정 이후 일본의 산업자본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Japan Net Bank의 설립을 시작으로 소니그룹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였고, 지점영업을 하는 은행도 설립됨.
    -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닌 은행으로는 2004년 설립된 후 2010년 파산한 Incubator Bank of Japan, 2005년 도쿄도(Tokyo Metropolitan Government)가 84% 지분을 보유한 ShinGinko Tokyo은행이 있음.

-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금융전업주의가 완화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작되었는데,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둔 것은 아니고 기존 은행의 특수한 형태로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유한 위험관리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성, 계좌보유자와 사용자 보호,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Currency and Comptroller)이 승인함.
      - 1997년 Net Bank의 성공적인 기업공개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활발해짐.
    - 미국 통화감독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금 규모와 유동성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적정성이 적절한(Well Capitalized)” 수준 이상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음.
      - 위험가중자본비율 10% 이상, Tier 1 위험자기자본 비율 6.0% 이상(FDIC는 초기 3년간 8.0%) 이상, 부채비율(Leverage Ratio)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은행이 설립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영국 HSBC가 설립한 HSBC Direct,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이 설립한 Open Bank Santander Consumer 등임.
    - 보험업의 경우 영국 보험회사인 Prudential U.K.가 1995년 유럽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Egg Bank를 설립하였고 스웨덴의 대형보험회사 Skandia도 Skandia Banken을 자회사로 설립함.
  
  - 미국, 유럽,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IT발전, 거래금융(Transaction Banking)의 보편화와 금융전업주의의 완화로 금융업권간 융합, 산업자본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음.
    - 은행과 산업자본이 결합한 형태, 비은행금융회사가 설립한 형태, 산업자본이 설립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영국의 HSBC Direct,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이 설립한 Open Bank Santander Consumer는 은행이 설립한 사례이며 일본의 Sony Bank, SBI Sumishin Net Bank, Japan Net Bank, Jibun Bank 등은 은행이 산업자본과 결합하여 설립한 인터넷 전문은행임.
    -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사업다각화와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늘어남.
      - 미국의 경우,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와 자동차회사가 설립한 경우가 많고, 유럽과 일본의 경우 은행들이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 미국의 보험회사인 Principal Financial Group과 Nationwide, 네덜란드의 ING가 설립한 ING Direct 등이 있음.
- \* ING Direct는 ING가 전세계적으로 설립한 온라인 직판은행인데, 2007년 Capitla One에 인수됨.

〈표 2〉 미국과 일본의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주설립 주체	은행명	설립년도	총자산	순영업이익	세부설립주체
은행	SBI Sumishin Net Bank	2007	3.2조 엔	71억 엔	SBI Holdings, 스미토모 신탁은행
	Sony Bank	2001	2,1조 엔	34억 엔	Sony파이낸셜홀딩스,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JPMorgan
	The Japan Net Bank	2000	6,160억 엔	29억 엔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전력·통신업체
	Jibun Bank	2008	5,960억 엔	15억 엔	미쓰비시 동경은행, 통신(KDDI)
비금융	BMW Bank	1999	106억 달러	1.5억 달러	BMW
	Ally Bank	2004	978억 달러	8.8억 달러	GM
	Rakuten Bank	2001	1.1조 엔	74억 엔	전자결제회사
	Seven Bank	2001	7,900억 엔	212억 엔	유통업체
증권업	E*Trade	2001	453억 달러	3.1억 달러	증권회사
	Charles Schwab Bank	2003	1,033억 달러	7.8억 달러	증권회사
카드업	American Express Bank	2000	405억 달러	18.7억 달러	카드회사
	Discover Bank	2000	781억 달러	24.4억 달러	카드회사
보험업	Nationwide Bank	2007	99억 달러	0.4억 달러	보험회사
	Principal Bank	1998	215억 달러	1,500만 달러	보험회사
기타	Barclays Bank Delaware	2001	201억 달러	3.3억 달러	개인
	CIT Bank	2000	176억 달러	1.1억 달러	금융그룹
	Sallie Mae Bank	2005	168억 달러	3.0억 달러	금융회사(학자금대출)

주: 총자산, 예금은 2014년 3월, 순영업이익은 2013년 1~12월 기준.  
자료: 각사 재무자료;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참고〉 미국 Principal Bank 사례

- 미국의 보험그룹인 Principal Financial Group이 설립한 Principal Bank는 모회사 고객 중심의 사업모형
- 설립 초기에는 모회사 고객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마케팅을 시작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기존 은행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이후 모그룹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 서비스에 주력하며 모그룹의 고객들과 밀착된 관계(Glue Relationship)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Principal Life의 건강보험상품과 병행한 Health Saving Account와 퇴직연금 이체계좌인 Safe Harbor 401K Saving Account 등이 대표적인 상품임

■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 모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사업모형 차별

화 노력 등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가 가속화됨.

- 미국의 경우 2001년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전체 상업은행 총자산 대비 0.1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월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4,400억 달러로 전체 상업은행 총자산 대비 3.1%로 성장함.
  - 운영업이익은 2013년 7.2억 달러로 전체 상업은행 운영업이익 대비 5.1% 수준임.
  - 일본의 경우 2014년 3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8.5조 엔, 총예금은 7.5조 엔으로 전체 일본 은행의 총자산, 총예금 대비 각각 0.9%, 1.1%임.
  - 2012년 당기순이익은 4.3조 엔으로 전체 일본 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1.4%를 차지함.
- Prudential Bank의 Glue Relationship Strategy, Japan Net Bank의 유가증권 투자 중심 전략, Sony Bank의 주택모기지론, eBank의 인터넷 쇼핑물 지급결제 서비스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니치마켓을 확보하고 있음.

### 3.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주요 이슈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주요 정책적 이슈는 아래의 <표 3>에 기술하고 있음.

- 금융실명제의 경우 실명 확인 위탁 허용, 자본금 규모는 500억 원 이하로 검토하는 등 과거보다는 적극적이거나 금산분리나 금융전업주의로 인해 업무범위는 시중은행의 업무에 비해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임.
  -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자본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대출이 제한되는 등 업무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비대면채널을 통해 은행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방안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표 3〉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관련 주요 정책적 이슈

주요 이슈		내용	검토안
금융실명제		계좌 개설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지점에 가서 신분증으로 실명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인터넷 전문은행은 대면채널이 없거나 빈약)	실명 확인 위탁을 허용
설립인가기준	설립자본금	일반은행에 비해 낮은 설립비용과 소규모 운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자본금 완화 검토 <sup>2)</sup>	500억 원 이하로 설정
	금산분리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유리한 ICT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업무범위 제한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금융전업주의	시너지 창출 효과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전업주의 완화 검토	
업무범위		비대면거래의 특성, 유동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고,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업무범위 설정	은행채 발행 제한, 기업 대출을 제한, 소액 외환거래 취급 등
소비자보호		비대면거래로 인한 고객이해의 부족 및 오해의 방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사고 방지, 불법거래 방지 등	

■ 금산분리 규정은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산업자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보험, 증권, 카드회사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대형 IT회사와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의결권 지분을 4% 이상으로 설정하여 금산분리 규정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알려짐.<sup>3)</sup>
- 그러나 산업자본의 소유비율이 높은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가능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비은행금융회사들이 자사 고객들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비은행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경우 정부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이 확대될 경우,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음.

- 비은행금융회사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업무범위가 제한될 경우 특화된 사업

2) 현행: 은행의 설립자본금은 1,000억 원 이상, 지방은행의 경우 250억 원 이상.

3) 파이낸셜 뉴스(2015. 1. 2).

모형 모색과 구축이 어려울 수 있어 정책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대출증가는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미국 통화감독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성, 계좌보유자와 사용자 보호와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승인하고 있음.

## 4. 정책적 제언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를 통한 성장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은행 산업의 시장집중도와 금융전업주의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장점이 예상되나 업권간 융합과 경쟁을 통한 혁신은 미미할 수 있음.
  - 미국, 일본, 유럽의 사례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 보험, 증권, 산업자본 등의 융합 채널 역할을 하여 설립 기업의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함.
- 비은행금융회사와 제조업 기업의 경우 신수익원 확보, 기존 고객에 대한 편익 향상으로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은행업의 시장집중도가 완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은 규제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순편익은 더 작을 수 있음.

〈표 4〉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관별 설립유인과 제약

기관	설립유인	제약
기존 은행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비대면채널(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서비스)과 중복</li> <li>지점 통폐합으로 이어질 경우 이해관계 상충 예상</li> </ul>
비은행 금융기관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전업주의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음
비금융기관 (IT 기업 및 제조업체)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수익원 확보	금산분리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음

- 가계부채로 개인과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모형 다변화를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어 은행 지점의 예대업무를 인터넷 채널로 단순히 확대하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우려가 있음.
  - 미국과 유럽의 비은행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특화된 사업모형을 통해 비은행금융업의 비용 절감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음.
    - 금융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핀테크(FinTech) 역시 기존의 예금-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혁신한 사례임.
  
- 은행업의 채널다변화는 기존에 관측되지 않았던 리스크 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 그리고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방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비대면채널이 갖고 있는 소비자보호, 정보유출 등에 대한 대비가 병행되어야 함. [kiri](#)